

인간과 개의 유대관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.  
그렇듯 이제 개는 어떤 이들의 삶에  
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.  
이승희 작가는 새하얀 캔버스 위에 개와  
사람의 끈끈한 관계를 그려낸다.  
그녀의 작품 속에는 숨겨진 장면이 있다.  
그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.



이승희 작가의 반려견

- 01 너구리
- 02 소금이
- 03 시월
- 04 열무
- 05 우동

## 반려짐, 그리고

## 개에 대한 이야기

이승희 작가



### 반려동물의 따뜻한 위로

'2021 고양우주작가공모전 고양아티스트 365'에 선정되어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여섯 번째로 개인전을 연 이승희 작가. 고양시는 시각예술 활성화와 시각예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있다.

개와 인간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이승희 작가 곁에는 늘 반려견이 함께 한다. 반려견은 모두 5마리, 그중 진돗개 '시월', 웰시코기 '너구리'가 작업실에 눌러 왔다. 인터뷰 내내 그녀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고 곁을 맴도는 모습이 미소를 자아냈다.

### 반려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

"얼마 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. 진료비가 50만 원 넘게 나왔는데 가벼운 금액은 아니잖아요. 동물병원에 가기까지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정말 아팠을 때 망설여질 수 있고, 이 문제는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

이승희 작가는 도축이 이루어지는 개들, 그리고 버려진 개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. 전시에서도 유기견, 들개, 개농장 등에 초점을 두었다. 동물 생산자, 판매자, 소비자, 보호소로 이어지는 파생되는 문제, 즉 우리 삶 주변의 개들, 그리고 반려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붓터치를 응원해 본다.

"크리스마스 선물로 새끼 강아지를 주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이종교배와 같은 누락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듯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장면들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면서 전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." 🐾

그녀의 작품에는 모두 개가 등장한다.  
그것도 모두 푸른색의 작품이었다.



색맹으로 알려진 개가 사실은 파란색과 초록색, 그 사이의 색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요.  
저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마음에 접근하려고 합니다.  
반려견과 살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들, 늦은 밤 집에 왔을 때 현관문 앞으로 달려오는 개의 마음과 머물렀던 자리의 온도가 너무 따뜻하고 선명해서 그런 장면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



#### + 반려동물 입양하기

-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, 포인핸드 앱으로 보호동물 확인
  - ② 전화상담 후 방문 예약 신청
  - ③ 입양을 희망하는 동물과 만남 후 입양 의사 결정
  - ④ 입양확정 후 입양서류 작성
- 주소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72-10  
문의 고양시동물보호센터 ☎ 031-962-3232

#### + 길고양이 중성화(개인포획) 신청하기

- 유선접수 ☎ 031-962-3238(평일 오전 9시~오전 10시)
- 신청기간 2022. 3. 2.부터 사업량 소진시까지
- 진행순서 포획 하루 전 신청 → 포획·입소 → 중성화 수술(후 처리 1~3일 이상) → 방사
- ※ 일일 최대 9두 신청 받으며, 1인당 2두 포획·입소 가능
- ※ 포획률 무상 대여

#### +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신청하기

- 신청기간 2022. 3. ~ 12.
-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
- 문의 고양시 콜센터 ☎ 031-909-9000

